

# 파피루스에서 페이스북까지...역사는 스스로 리트윗한다

## 소셜미디어 2000년

톰 스탠디지 지음

지난 2010년 10월, 아프리카 튀니지 한 과일행상이 경찰의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한다. 이에 격분한 고향마을 다른 노점상들이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은 최루가스로 강제 진압하며 침묵을 강요했다. 결국 한달여 지속된 튀니지 시민시위는 23년 독재통치의 막을 내리게 만들었고 아랍권으로 확산돼 '아랍의 봄'을 불러왔다. 이때 소셜미디어는 변혁의 불씨가 더 빨리 퍼져나가도록 만든 '촉진제' 역할을 했다.



2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소셜미디어의 기원을 인간의 사회적 뇌 진화, 언어탄생 이후에 등장한 풍문 주고받기, 문자발명에서 찾는다. 이렇게 시작된 소셜미디어가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현대의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어떤 형태로 전개됐는지 들여다본다.

을 했다.

톰 스탠디지가 최근 펴낸 '소셜 미디어 2000년'은 SNS의 역사가 20세기 인터넷 확산 후 새로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저자는 21세기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블로그는 17세기 소책자,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18세기 커피하우스의 새로운 형태라고 논증한다. 특히 소책자 등 소셜미디어는 종교개혁과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셜미디어의 원형은 로마시대 관보(官報)인 '악타 디우르나'(Acta Diurna)에서 비롯된다. 악타는 매일 1부만 게시됐기 때문에 귀족 등 수요자들은 필경사(筆耕士)에게 납판에 베껴쓰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터키 동남부 집정관으로 부임한 키케로는 로마에서 돌아가는 일을 수일내에 파악할 수 있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의 발전은 정보교환 방식에 대변혁을 가져왔다. 손으로 필사하는 것보다 100배이상 빠른 속도로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유럽대륙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인쇄술에 힘입은 바 크다.

18세기 등장한 커피하우스 역시 소셜미디어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커피를 한잔 마시며 다양한 미디어를 읽고 자유롭게 공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새롭고 평등한 지적 공간'이 등장한 것이다.

19세기 중엽 대형신문과 잡지가 등장함에 따라 정치적 문제를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해체됐다. 이후 매스미디어가 득세했던 150여년 동안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으나, 1990년대 등장한 인터넷은 소셜미디어 생태계에 부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저자는 후기에서 "소셜미디어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다.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

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유럽대륙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인쇄술에 힘입은 바 크다.

18세기 등장한 커피하우스 역시 소셜미디어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커피를 한잔 마시며 다양한 미디어를 읽고 자유롭게 공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새롭고 평등한 지적 공간'이 등장한 것이다.

19세기 중엽 대형신문과 잡지가 등장함에 따라 정치적 문제를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해체됐다. 이후 매스미디어가 득세했던 150여년 동안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으나, 1990년대 등장한 인터넷은 소셜미디어 생태계에 부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저자는 후기에서 "소셜미디어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다.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



18세기에 등장한 런던의 커피하우스 내부. 이곳에서 사람들이 소책자를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새롭고 평등한 지적 공간'이었다. (열린책들 제공)

마트폰의 한국 보급률은 83%(4260만대·9월 기준)로 세계 4위다. 개방적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소셜미디어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열린책들·1만98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산동네 마을 사람들 이야기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 해질 무렵

황석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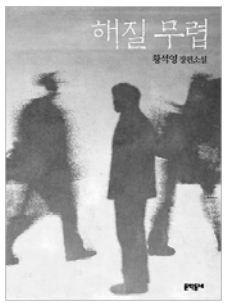
소설가 황석영이 '여울물 소리' 이후 3년만의 신작 '해질 무렵'을 펴냈다.

200페이지 분량의 경장편 소설인 이번 작품은 인생의 '해질 무렵'에 선 한 남자의 이야기와 희망을 놓지 않지만 결국 절망에 발목이 잡히는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묻고 있다.

소설은 달동네 어묵장사 아들이서 유명 건축가로 성공한 삶을 사는 60대의 박민우와 연극 연출가로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 여성 정우희의 이야기가 번갈아 전개된다.

박민우는 지자체가 주최한 강연장에 찾아온 한 여성이 건네준 쪽지에서 첫사랑 차순아의 이름을 발견하며 과거로 돌아간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온 그의 가족은 산동네 달골마을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첫 사랑을 만난다.

또 다른 주인공 정우희는 서른을 바라보는 연극 연출가다.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그녀는 편의점 알바를 뛰면서도 꿈을 놓지 않으려 하지만 삶은 녹록치 않다. 그런 그녀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는 이는 '검



은 셔츠'로 불리는 김민우.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그녀는 박민우와 어떤 '게임'을 시작한다. 산동네 마을 풍경,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회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 등에서는 작가의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설에서 박민우의 동료 건축사로 등장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 김기영의 모습은 세상을 떠난 정우희 건축가의 일화에서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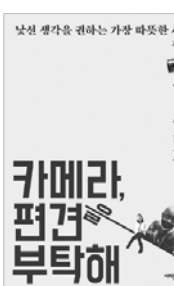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개인의 회한과 사회의 회한은 함께 흔적을 남기지만, 겪을 때에는 그것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지난 세대의 과거는 업보가 되어 젊은 세대의 현재를 이루었다. 어려운 시절이 오면서 우리는 진작부터 되돌아보아야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적었다.

(문학동네·1만15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경향신문에서 사진기자로 일해 온 강윤중 기자가 서글프고, 화나고, 감동스럽고, 따뜻한, '진짜' 우리 시대 이야기를 들려준다. 빈곤, 양극화, 철거민과 도시개발, 독거노인, 존엄사, 급증하는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생존권, 동성애, 소수자 등 저자가 카메라 속에 담아온 열쇠말의 범위는 다양하면서도 깊다. 책에 실린 열여섯 쪽지에는 오후와 선일견, 불통으로 얼룩진, 그래서 우리가 쉬이 놓쳐 버린 낯선 생각이 담겨 있다. (서해문집·1만3900원)

▲재능과 창의성이라는 유령을 찾아서=창의성이라는 말은 이미 많이 대로 났아버린, 진부한 말이 돼버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 단어의 울림만으로 격하게 매혹됐고 삶의 어떤 거대하고 모호한 지향점을 부여받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창의성이란 단어만으로는 정신이 약동하지 않는다. 책은 점점



공허한 수사가 되어가는 '창의성'을 원점부터 검토한다. 소크라테스적인 문답 형식을 통해 상투화된 개념을 뿌리부터 재사유하는 것이다. (알마·1만3800원)

▲아키토 피아의 실험=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동명의 전시와 연계, 기획된 공동출판물. 새로운 도시의 구성을 꿈꾸는 건축사의 사회적 실험을 다루는 이 전시는 세운상가, 파주출판도시, 헤리 아트밸리, 판교단독주택단지 등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아키토피아의 욕망이 투사된 장소들을 재탐색하고, 도시 구조의 일부가 되거나 건축 전시장과 같은 모습으로 남은 장소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이들을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 기록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마티·1만9000원)

▲걱정 많은 철학자와 지구에서 살아남는 법=집값 같은 삶의 무게 때문에 지구를 떠나고 싶은 당신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눈물로 잠을 청하는 젊은이에게, 철학자 서정욱이 들려주는 걱정 많은 철학자들의 고군분투 지구 생존기. 3포 세대로 시작해 5포, 7포를 지나 대한민국, 헬조선, 흡수저 소리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그저 오늘의 청춘들보다 조금 앞서 살았던, 걱정을 사서 하는 게 취미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준다. (함께읽는책·1만6000원)

▲세계인이 놀라는 한국사 7장면=역사학을 전공한 현직 언론인이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이야기 한국사.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우리 역사를 7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맥락을 잡아 주고, 동시에 자부심도 느끼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구촌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역사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게 해준다. (표북·1만2000원)

▲부족 리더십=무한경쟁시대. 무수한 기업이 태어나고 사라진다. 번창하고 붕괴하는 조직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 책의 저자들은 각 조직 속에 자리 잡은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최대 150명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공유하느냐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과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부족의 문화는 다섯 단계로 나눈 저자들은 부족의 리더들이 자신의 부족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언을 들려준다. (한울아카데미·3만4000원)

## 어린이 책



▲신기한 무지개=반짝반짝 거울 그림책 시리즈. 끝없이 변신 가능한 매개체인 거울 재질을 종이 형태로 구현, 책을 90도로 펼치면 손에 잡힐 듯한 3D 입체 페이지

가 펼쳐진다. 실제 사물을 보는 듯한 입체감을 부여하며, 그림과 꼭 맞게 쓰인 구어체의 이야기는 어린이와 부모 모두를 사로잡는 재미를 선사한다. (문학수첩 리틀북·1만4000원)

▲바르샤바 계도의 마지막 공연=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진행 중이던 1942년 5~8월 폴란드 바르샤바 계도의 고아원 '돔 시에로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인 그림책. 이곳은 그해 8월 6일 강제로 문이 닫히고, 직원과 아이들 200여 명이 학살이 자행된 트레블링카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야기는 고아원의 마지막 3개월의 문학적 보고서다. (평화출판물·2만2000원)

▲통합지식 100 우리나라 유적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 볼 만한 유적지 100곳을 선정했다. 특히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나 보물, 사적,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적지도 빼놓지 않아 학습에 도움이 된다. (주니어RHK·1만5000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르로제꽃**  
북구 용봉동 425-2번지  
(용봉동 개인택시 신현 옆)  
꽃향기 감촉 선풍기  
매일 가득한 감성 꽃집  
대표 박정호 ☎062)413-7673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 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 인테리어 소품, 의상 자수 수선  
한복수, 마크수, 한웃 예쁜 자수로 리폼  
26년 경력 의류 자수  
☎010-8261-5205

**오리나라만세**  
북구 중흥동 333-26번지  
(전대정문에서 50미터 지점)  
약오리, 옷오리, 오리탕, 오리주물럭,  
오리로스구이, 아구찜, 아구탕  
☎062)522-7333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저, 사주, 궁합, 부적  
영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해택을드리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4  
(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동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부장례식장)  
이성희 ☎010-8542-3366

**미정**  
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향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 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침, 수족침, 이침  
☎062)432-1324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회암관**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옆  
(장영사 정문앞)  
소머리국밥, 황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손님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

**북구모아공인중개사**  
북구 중흥동328-15 중흥모아@후문  
아파트, 원룸, 상가, 임야  
임대 및 매매전문  
대표 고광호 ☎010-3624-0058

**늘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옆)  
부대찌개, 찜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붕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이가희관**  
서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리,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옆)  
경조화환, 동·서양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김봉식 ☎062)236-3177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팥뚥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062)224-7687, 010-2611-7687